

영산강 유역사

박상우 (서남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1. 머리말

영산강유역은 서남쪽으로 흐르는 영산강을 중심으로 저평(低平)한 구릉과 평야로 이루어져 있고, 서해안과 남해안을 끼고 있다. 온화한 기후와 지리적인 조건으로 일찍부터 사람들이 자리잡았고,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였던 곳이다.

영산강유역의 고고학적 조사는 1917년경 일본학자들이 나주 반남지역의 고분에 대한 조사(朝鮮總督府 1920)가 처음이다. 이 지역의 자체적인 조사는 전남대 박물관(1957년 설립)에 의해 1970년대 초에 시작되었다. 이후 국립광주박물관(1978년 개관)을 비롯하여 목포대 박물관(1982년 설립)이 조사활동에 참여하였고, 1990년대에는 조선대 박물관, 순천대 박물관, 광주시립박물관 등도 유적조사에 참여함으로써 발굴조사가 점차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리고 1993년에 전남지역, 전북지역 및 제주지역의 연구자들이 모여 호남고고학회(湖南考古學會)가 결성됨으로써 고고학의 연구성과도 증가하게 되었다.

최근 새로운 고고학적 자료가 증가하면서 영산강유역의 고대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고대사회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즉, 이 지역이 4세기 후반에 百濟로 편입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마한(馬韓)이었다는 종래의 견해(이병도 1959)와 다르게 백제가 이 지역을 장악하는 시기가 5세기 후반이나 6세기 중반 경으로 보는 주장이 제

기되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영산강유역의 고대사회, 즉 나주 반남면 고분군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하였던 왜라는 정치세력의 유산이라는 주장(이덕일·이희근 1999)도 제기된 반면에 영산강유역에서 발견되는 전방후원형 고분(前方後圓形 古墳)이 일본과 관련된다는 일본학자들의 주장들도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영산강유역 고대사회의 특성과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영산강유역 고대문화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형성과정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4~5세기 단계 영산강유역 고대사회와 백제(百濟)

1) 5세기 전반까지의 간접지배 양상

3세기 후반 내지 4세기에 들어서면 영산강유역에서는 주구묘의 전통을 계승한 대형의 옹관고분이 출현하는데, 대형 옹관고분의 출현 배경에 대해서는 별다른 연구의 진전이 없다. 이 지역이 토기 생산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 옹관묘제가 성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이 있는 이후, 영산강유역의 지역적 조건과 관련한 일반적인 언급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영산강유역에서 옹관고분이 출현하게 되는 배경은 지리적 특성에서 연유한 문화적인 여건과 정치적인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대형 옹관고분 출현의 의미 자체는 영산강유역의 여러 소국 중 중심 소국 또는 중심세력이 형성되었음을 나타낸다는 것이 아닐까 한다. 비록 마한의 맹주

국이었던 천안 일대의 목지국이 3세기 중·후반 마한사회의 주도권을 상실해 갔다고 해도, 백제는 4세기에 들어서야 천안·청주에 이르는 금강 이북지역을 영역화했던 것이다. 따라서 지역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영산강유역에 대해서는 거의 형식적인 차원에서의 맹주국의 지위도 누리기 어려웠을 것이다. 더욱이 4세기 초에는 이이제이책(以夷制夷策)으로 마한 소국의 통합을 저지하던 낙랑(樂浪)·대방군(帶方郡) 세력이 한반도로부터 축출됨에 따라 소국 간의 통합이 본격화되면서 영산강유역에도 맹주적인 존재가 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맹주적인 존재의 표상이 大形의 분구를 가진 고분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영산강유역 옹관고분의 특징은 그동안 누누히 지적되어 왔다. 그 특징은 성인 매장용의 전용옹관(專用甕棺) 사용, 다장묘(多葬墓)의 형식 채용, 다양한 분구 형태의 채택, 매장시설의 위치로 地上式을 취한 점, 분구 둘레에 주구(周溝)를 둘러싼 점 등이다. 지역별 분포현황을 보면, 영암군에서는 대략 22개, 나주에서는 12개, 함평에서는 11개 정도의 옹관고분군이 조사될 정도로 옹관고분이 집중분포하고 있다. 영광·광주·무안·해남·강진지역에서도 옹관묘군이 조사되었으나, 봉분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고, 군집 현상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옹관고분의 중심지역은 20~30기씩 밀집되어 있는 영암 시종면, 나주 반남면, 함평의 월야면·학교면 등지이다. 영산강의 지류인 삼포강 하류에 위치한 영암 시종면의 내동리·와우리·옥야리·신연리·금지리·만수리 일대의 옹관고분은 비교적 이른 시기의 고분으로, 삼포강 상류에 해당하는 나주 반남면의 고분과는 몇 가지 차이점을 보인다.

첫째, 시기적 선후관계가 보인다는 점이다. 영산강유역 옹관고분의 연대비정에는 연구자마다 적지 않은 편차가 있지만, 영암지역이 나주지역보다 앞선 시기의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영암 시종면은 전용옹관과 일상용의 대형옹관이 공반되는 데 반해, 반남면에서는 전용옹관만 발견되기 때문이다. 대체로 영암 시종면은 4~5세기, 나주 반남

면은 5세기~6세기 전반에 비정된다.

둘째, 분구 형태의 차이이다. 일찍이 매장주체부에 대한 관심에 치우쳐 있을 뿐 분구의 형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여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으나, 영암 시종면의 분구들은 이형분구(異形墳丘)들로서 원형분구를 가진 고분들보다 밀집도가 높은 편이다. 삼포강의 하류에서 상류쪽으로 갈수록 이형분구가 줄어들고 원형분구가 많아진다. 이형분구는 긴 삼각형에서 긴 사다리꼴을 거쳐 정방형에 가까운 형태로 변화해갔을 터인데 이형분구의 소멸과 원형분구 고분의 정착과정에서도 옹관고분사회가 상당한 변화를 거쳤으리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옹관고분사회 내에서도 시기적인 변화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부장품의 차이이다. 영암 내동리고분에서는 이렇다 할 부장품이 보이지 않는 데 반해, 반남면 신촌리고분에서는 금동관모(金銅官帽)와 금동신발, 금동이식(金銅耳飾), 봉황문 환두대도 등 최고의 부장품이 출토되었다는 점이다. 옹관묘의 구조상 도굴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나, 발굴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발굴보고서에 따르면, 4세기~5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옹관고분은 비록 대형의 분구를 채택하기는 했지만, 부장유물 자체는 상당히 빈약한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4~5세기 단계를 두 시기로 나뉘어 보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영산강유역 묘제상의 이러한 특징은 문헌기록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을까? 이는 《일본서기》신공 49년조 기사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倭의 가야 7국 평정기사는 근초고왕대 전라도방면과 가야지역 진출을 윤색한 것으로 가야 7국 평정이 가야지역에 대한 영토적 복속을 의미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해진(古奚津)에 이르러 남만침미다례(南蠻枕彌多禮)를 도록했다는 기사도 그 의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해진과 침미다례는 문맥상 가까운 거리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고해진에 대해서는 강진·해남, 침미다례에 대해서는 강진·해남·제주도 등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약간의 견해차가 있으나, 한반도

서·남해안에 위치해 있음은 분명하다. 또 침미다례를 점령하자 자연히 항복해온 비리(比利) 이하 4읍 내지 5읍의 위치가 문제가 되는데, 이의 항복을 기념하여 왜장(倭將)과 백제왕이 맹약을 한 벽지산(支山)이나 고사산(古沙山)이 김제나 고부지역으로 비정되므로 대체로 전북 일대에 해당될 것이다. 어떤 지역의 정복을 기념하는 차원의 맹서를 한다면, 이미 백제의 영역이었던 지역보다는 신정복지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시기에 와서 전북지역이 백제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백제의 영역확대 방식은 내륙지역을 통한 점진적인 지배영역의 확보방식 뿐만 아니라 해안을 통한 교두보적 거점 확보 형식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공 49년조의 기사는 전북지역에 대해서는 영토적인 복속을 의미하지만, 침미다례의 점령기사는 영산강유역의 세력집단에 대한 영토적 복속이었다기 보다는 일종의 교역거점 확보의 의미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일본서기》신공기 기사의 의미가 이와 같다고 하면, 근초고왕대 비록 일시적인 진출은 가능했을 지라도 백제 중앙정부가 이 지역에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웅진천도 이전의 상황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필요성 자체도 그다지 절박한 것은 아니었음을 뜻한다. 이 지역에 대한 백제의 지배력이 확대되는 것은 왕권강화책으로 통치체제를 정비하고자 했던 개로왕시대에 웅진천도에 이르러서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세기 전반까지 영산강유역 웅관고분의 피장주체는 강한 독자성을 가진 토착 수장층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에게 어떠한 방식의 지배가 이루어졌을까? 고구려나 신라의 예를 참조할 때 지방관이 파견되기 이전의 통치방식은 간접지배 혹은 공납지배로 통칭되나, 중앙의 집권력의 강도 및 피복속지역의 사정에 따라 세부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대체로 근초고왕대의 일시적 진출 이전까지는 백제의 지배력은 미미하고 거의 완전한 자치가 유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근초고왕대 고부지역에 이르기까지 영역

을 확대하고 전남 해안지방에 가야-왜로 이어지는 교역로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영산강유역에 대해 이전에 비해서는 좀더 강제적이고 정기적인 공납이 행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백제 중앙으로 보았을 때도 공납 등의 임무를 담당할 지역 수장층의 존재가 필요했는데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영암 시종면 일대의 세력이며, 이들을 중심으로 주변 세력들이 통합되어 나가는 과정을 거쳤던 것이 아닐까 한다.

2) 5세기 중·후반 威勢品の 賜與를 통한 百濟의 지배력 강화

영산강유역 사회에 대한 백제의 지배력 강화는 《삼국사기》동성왕 20년조의 기사가 참조된다. 조공을 제대로 하지 않는 탐라에 대한 위협의 수단으로 동성왕은 정벌을 단행하여 武珍州에 이른 것인데, 여러 가지로 편리했을 海路가 아니라 육로를 이용했다는 사실은 근초고왕대 이래 백제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영산강유역에 대한 지배력 강화의 의도가 작용했음을 말해준다. 간접지배 상태에 있던 영산강유역 사회에 대한 지배력의 강화는, 집권력 확대를 추진해가던 동성왕에게는 한강유역의 상실에 따른 인적·물적 기반의 상실을 만회할 수 있는 절박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백제의 지배력 강화는 나주 반남고분군에서 출토된 위세품(威勢品)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나주 반남면 고분군은 신촌리와 덕산리는 웅관고분만이, 대안리는 웅관고분과 석실분이 혼재하고 있다. 반남고분군에서 출토된 위세품에는 금동관·금동신발 등 금공품과 환두대도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백제지역의 금공품을 보면, 금동관으로는 익산 입점리, 나주 신촌리, 함평 신덕고분 출토품이 있으며, 금동신발로는 익산 입점리, 나주 신촌리, 나주 북암리와 무녕왕릉 출토품이 있다. 비교 검토가 가능한 금동신발의 경우, 입점리와 신촌리의 금동신발은 거의 유사한 문양을 띠고 있다. 사각형 문양 안에 들어 있는 꽃잎의 문양이 입점리는 3잎무늬인 데 반해 신촌리는 4잎무늬인 차이만 있을 뿐이다. 금동관모 또한 나주 신촌리 9호분의 출토품은

익산 입점리 1호분 출토품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이에 비해 무녕왕릉에서 출토된 왕의 금동신발은 내측판과 외측판, 저판 등 3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닥에는 9개의 스파이크가 박혀 있다. 각 판은 2장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쪽은 은판, 바깥쪽의 판은 금동판이다. 측판은 귀갑문(龜甲文)으로 구획되고 내부에는 화문(花文)·봉황문(鳳凰文)이 시문되어 있다. 북암리 3호분 96석실에서 출토된 금동신발은 무녕왕릉 출토의 금동신발과 거의 유사하며, 오른쪽 신발 바닥면에 주로 허리띠장식구로 이용되는 魚形裝飾具를 부착한 점이 특징적이다.

귀갑문의 금동신발은 일본 강전선산고분(江田船山古墳)이나 후지노끼고분에서도 확인되는데 백제 지역과 일본지역에서 출토된 금동신발은 내외측판과 저판 등 3장의 판으로 결구된 것이 공통적이다. 금동신발의 제작형식도 거의 동일한 모티브를 가지고 문양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만을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들 금공품은 각 지역에서 자체 제작한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제작하여 사여(賜與)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촌리 금동관과 무녕왕릉 왕비 관식(冠飾)에서 보이는 인동문(忍冬文)은 연화문(蓮花文)과 인동문이라는 같은 소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무녕왕릉 관식에서 수지(樹枝)가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관식의 제작배경 자체는 동일한 것이 아닐까 한다.

나주 신촌리 9호분 을관(乙棺)에서 출토된 환두대도는 금동장단봉문환두대도, 은장단봉문환두대도, 삼엽문환두대도 등 3종이다. 이들 환두대도는 철제 은상감 환두대도가 출토된 天安 花城리나, 은상감 환두대도·삼엽문 환두대도, 금동제 단봉문 환두대도 등 다수의 환두대도가 출토된 천안 용원리, 철제삼엽환두대도가 출토되고 은상감환두대도가 출토되었다고 전해지는 청주 신봉동유적의 환두대도와 같이 유력 수장층의 존재를 말해준다. 그러나 무녕왕릉 출토의 환두대도는 왕의 상징인 '용'이 들어간 금은장단봉문환두대도임에 반해, 신촌리 출토의 환두대도는 금동단봉문환두대도이기 때문에 국왕보다 위상이 낮았음을 알 수 있다. 금동제의 환

두대도 자체는 중국의 복조나 고구려와 연관을 짓기도 하지만, 용원리나 무녕왕릉 출토품과 마찬가지로 백제계로 비정되기 때문에 백제 중앙으로부터 사여된 위세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천안 화성리나 용원리는 청자반구호나 흑갈유천계호와 같은 중국제 청자가 출토되고, 익산 입점리 1호분에서도 중국제 청자사이호가 출토되는 데 반해 나주 반남고분군을 비롯한 영산강유역에서는 중국제 자기가 전혀 출토되지 않는다. 이들 지역에서 출토된 청자가 각 지역 수장층의 자체 교섭의 결과나, 중앙으로부터의 사여품이나의 논란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지역의 토기의 양상이 한성지역의 토기양상과 유사하므로, 재지적 성격이 강한 수장층에게 중국제 물품을 사여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출토지역으로 보았을 때도 백제 왕실 중심의 외교산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은 사여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따라서 영산강유역에서 중국제 자기가 전혀 출토되지 않는 것은, 한성도읍기에는 아직 영산강유역이라는 곳이 중국제 자기를 사여함으로써 재지 수장층을 포섭해야 할 만큼 절박한 필요가 있었던 지역은 아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촌리 9호분 을관 단계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더 이상 중국제의 물품이 아니라 백제 중앙에서 자체 제작한 금동관이나 금동신발, 환두대도와 같은 것이 위세품으로서 지급된 것은 아닐까 추정된다. 중국제 청자의 위세품으로서의 기능이 백제 중앙에서 자체 제작한 이들 제품에 비해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장품을 가진 신촌리 9호분 을관의 연대에 대해서는 4세기 중반~6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연구자마다 편차가 크다. 연대 비정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견해는 5세기 후반경이다. 나주 신촌리 9호분 피장자의 성격 또한 부장품의 성격으로 보아 이 지역의 최고 통치자이기는 하지만, 이 지역은 백제와 별개의 지역이 아니라 백제 국가의 질서 속에 편입된 지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유사한 금동관모와 금동신발이 출토된 입점리 1호분은 황혈식 석실분이라는 백제 중앙의 묘제를 띠고 있는 것에 비해, 신촌리 9호분은 전통의 대형 옹관고분을 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과의 관계에 차이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백제에 대해 강한 독자성을 갖는 토착 수장층으로 규정하던 종래의 견해와 달리 백제 중앙의 질서에 편입되어가는 표징으로서 금동관·금동신발과 같은 위세품의 사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한 것인데 유력한 토착세력이 백제 중앙의 질서와 문화를 수용해가는 과정은 나주 다시면 북암리 3호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북암리 3호분은 옹관묘 22기, 황혈식석실분 11기 등 총 41기의 매장시설이 확인된 다장묘·복합묘이다. 96석실은 총 11기의 석실 중 제 I 유형에 속하여 비교적 연대가 이른 편인 5세기 후반~6세기 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석실 내에 대형의 합구식 옹관이 안치된 96석실에서는 금동신발이 출토되었다. 앞서 살펴본대로 금동신발은 무녕왕릉에서 출토된 신발과 동일한 귀갑문을 띠고 있어 백제 중앙과 같은 계통인데, 토기와 같은 부장품은 현지에서 제작된 것이 많다. 석실 내에 옹관이 안치되어 있는 것 또한 영산강유역의 토착적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황혈식석실분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촌리 9호분 을관에 비해 백제 중앙의 지배력이 강화된 측면을 엿볼 수 있다.

그러면 나주 다시면 세력과 반남면 세력은 어떠한 관계에 있었을까? 시기적인 선후관계도 있고 상하관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불리 단정할 수는 없으나, 다시면 세력이 반남면 신촌리 9호 을관으로 대표되는 토착세력의 관할범위 내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면, 반남면 세력은 지극히 제한된 범위의 대표자가 된다. 이럴 경우 영산강유역은 다수의 토착 수장층이 분산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일 뿐 하나의 통합된 정치체제를 이루었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이다. 또 동일한 세력 범주로 간주할 경우, 북암리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백제 중앙의 나주지역에 대한 지배력 강화가 이전의 체제, 즉 반남

지역의 통합력을 와해시키는 것과 같은 일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북암리 3호분 96석실은 토착묘제와 새로운 묘제가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토착세력이 백제 중앙문화를 흡수하는 과정이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무녕왕릉 출토 금동신발과 동일한 귀갑문의 신발을 사여받음으로써 지방지배의 역할을 담당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백제 중앙의 지배력 확대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산강유역의 토착세력 자체도 일정한 필요성 때문에 중앙 권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측면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4~5세기 단계의 영산강유역 고대사회에는 5세기, 6세기 전반까지 거대한 봉분을 가진 대형의 전용옹관이 분묘로서 사용되고, 금동관 등의 위세품이 옹관고분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백제 중앙의 왕과 비견될만한 강력한 토착수장층의 존재가 상정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요소들이 독자적인 정치체제가 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인가 하는 점이 과제로 남는다. 비록 옹관고분이라는 독자적인 묘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백제와의 관계 속에서 영산강유역 고대사회의 성격이 논의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문헌상에 이 지역 정치세력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앞서 살펴본 《진서》 장화열전의 '신미제국'이 영산강유역 옹관고분사회를 지칭한다고 보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이 사료는 어디까지나 3세기 후반의 사실이라는 점이다. 영산강유역 옹관고분의 중심 시기인 4세기~5, 6세기 단계까지의 정치세력을 포괄하는 용어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백제의 대대적인 정복활동이 이루어진 4세기 근초고왕단계 이후 5세기 후반·6세기 전반까지의 영산강유역 옹관고분사회는 백제와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정치체라기보다는, 역시 대외적으로는 백제의 세력권 내에 포함된 것이고, 다만 백제의 이들에 대한 지배력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

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물론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의 시기는 지방관이 직접 파견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간접지배 시기이기는 하나, 직접지배로 전환하게 되는 하나의 과도기로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삼국초기(三國初期) 영산강유역 농경의 특징

영산강유역 고대 발농사체계의 일면을 알려주는 자료가 광주 신창동 발유구이다. 신창동유적은 잔구성 저구릉과 영산강 범람에 의하여 형성된 충적지대에 위치하였다. 구릉지대에는 주거와 공방이 위치한 생활공간과 아울러 생산공간인 밭이, 구릉지 하부에는 저습지와 그 근처에 조성된 수전이 배치된 모습이다.

발유구는 본 유적의 지표에서 50cm 아래의 흑갈색 부식토층에서 발견되었다. 밭의 모습은 너비 10~25cm 가량의 모래 띠로 이루어진 5줄의 골이 40~70cm 간격으로 일정하게 구획되어진 형태이다. 현재까지 비교적 잘 남아 있는 모래 띠의 길이는 9.2m이다. 여기서 모래로 채워진 부분은 고랑으로, 그 사이는 이랑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고랑과 이랑을 조성하여 밭작물을 재배하였던 모습은 청동기시대에도 발견된다. 농경문청동기에 한사람이 목재로 보이는 따비를 가지고 고랑과 이랑이 있는 네모진 밭을 가는 모습이 나온다. 그리고 최근 진주 대평리유적에서 고랑과 이랑이 있는 청동기시대 경작지가 발견된 바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모습의 경작지가 계속 발견되리라고 기대된다.

그러면 밭작물을 재배할 때, 왜 이랑과 고랑을 조성하였을까. 그리고 작물은 이랑과 고랑 가운데 어느 곳에 파종하였을까가 궁금하다. 이 의문은 당시 작무법(作畝法)의 내용을 추적함으로써 해답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청동기시대 밭이랑·고랑의 기능과 관련하여 진주 대평리에서 발견된 경작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청동기시대 뿐만 아니라 삼국시대의 경작지도 발견되었는데, 양 시기 밭의 모습은 고랑과 이랑을 조성한 방향에서 차이가 난

다. 청동기시대의 경우는 주로 강의 흐름이나 등고선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고랑과 이랑을 조성하였다. 반면에 삼국시대의 경우는 대부분 강의 흐름이나 등고선과 동일한 방향으로 그것들을 조성하였다. 그렇다면 양 시기에 이랑과 고랑의 방향을 달리하여서 조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가 궁금하다.

진주 대평리 삼국시대 경작지 가운데 일부는 이랑과 고랑이 각이 없이 파상(波狀)으로 연결되고, 고랑의 폭이 규칙적이며, 그 깊이도 일정하였음이 확인되는데(〈표2〉참조), 이것은 축력(畜力)을 이용한 쟁기로 같이작업을 하였음을 시사해주는 증거로 이해되고 있다. 반면에 청동기시대의 경작지는 주로 석제와 목제농기구로 이랑과 고랑을 조성하였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농경문청동기에서 목재 따비로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진주 대평리 발유구에서 목제의 따비나 쟁이를 가지고 이랑과 고랑을 조성하였음을 시사해주는 농구흔이 발견된 바 있었다.

축력을 이용한 쟁기로 밭을 갈면, 깊이 갈 수 있다. 이 때문에 고랑의 골을 깊게 조성하고, 두둑을 높이 쌓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목제나 석제의 농기구로 밭을 갈면, 깊이 갈이가 그리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고랑을 깊게 만들거나 두둑을 높이 쌓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집중 호우가 내리면 두둑이 허물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였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고랑과 이랑의 방향을 강의 흐름이나 등고선과 직교하여 만든 사유는 이처럼 한꺼번에 비가 내릴 경우 배수를 원활하게 하여 두둑이 허물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에 있었지 않았을까 싶다.

한편 삼국시대에 고랑의 골을 깊게 만들거나 두둑을 높이 쌓는 것이 가능하였던 바, 집중 호우 시 두둑의 훼손이 청동기시대처럼 그리 흔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에 이랑과 고랑의 방향을 반드시 강의 흐름이나 등고선과 직교하여 만들지 않았던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듯싶다. 이처럼 청동기시대에 고랑이 배수구로서 기능하였던 측면을 염두에 둔다면, 당연히 작물의 파종처는 이랑이라고 볼 수밖에

일반기사

영산강 유역사

표 1. 청동기·초기철기시대 경작지

유적명	규모	이랑(cm)	고랑(cm)	고랑깊이(cm)	곡물종류	기타
진주대평리 어은 1지구	20m×50m	50	35	10	조의 탄화물	고랑에서 무더기로 발견
진주대평리 옥방 1지구	42m×24m	45	40	10	-	고랑과 이랑은 각이 없이 파상으로 연결. 옥방 8지구 발 북쪽 끝으로 추정.
진주대평리 옥방 2지구	남북33m×동서152m	28~44	28~40	8~10	-	경작 때 掘地痕(목제농기구) 발견.
진주대평리 옥방 4지구	남북39m×동서30m	60~80	40~50	-	-	이랑과 고랑의 방향은 강과 직교되는 방향으로 조성
진주대평리 옥방 6지구	-	-	-	-	탄화된 보리, 수수, 조나 피로 추정되는 곡물 발견	130cm의 간격으로 깊은 골을 파고, 그 사이에는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얇게 파 작은 골을 만들어 이랑을 2분할함.
진주대평리 옥방 8지구	-	40	30~40	30~40	-	자연풍화에 의하여 훼손되어 두둑의 높이가 낮음
진주대평리 옥방 9지구	(남서구간)	70	90	17	-	
	(북동구간)	80	45	12~15	-	
광주시 신창동	이랑길이 9.2m	40~70	10~25	-	-	너비 25~70cm의 모래띠로 이루어진 5줄의 골이 40~70cm 간격으로 구획된 모습.
진안 여의곡 유적	ㄱ. 6고랑, 길이 4m ㄴ. 56고랑, 길이 20m	-	ㄱ. 65 ㄴ. 35~40	-	-	발고랑의 방향은 금강의 흐름이나 등고선과 직교하는 모습.

표 2. 삼국시대 경작지

유적명	규모	이랑(cm)	고랑(cm)	고랑깊이(cm)	곡물종류	기타
진주대평리 옥방 9지구 2층(동서방향)	긴 이랑 길이 38m	40~60	40~45	5~10	-	-
진주대평리 옥방 9지구 2층(남북방향)	이랑 길이 5.2m	60~70	30~40	4~7	-	-
진주대평리 옥방 6지구	-	50~60	50~60	-	크기가 큰 탄화곡물, 조, 수수탄화물 발견	이랑과 고랑을 합한 너비가 80~90cm로 일정한 편. 옥방 4지구의 경작지와 연결.
진주대평리 옥방 4지구	남북73m×동서35m	23~60	24~80	-	-	이랑과 고랑은 각이 없이 파상으로 연결. 고랑깊이 일정.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상층	동서60m×남북160m	70~75	25~30	25~30	-	이랑과 고랑은 남북방향으로 조성.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하층	남북110m×동서50m	70~80	70~80	-	-	고랑의 바닥 안쪽에 약 30cm 간격으로 지름 20cm 가량의 구멍이 지그재그로 배치.

없다. 진주대평리 어은 1지구 발유구의 경우 고랑에서 반달돌칼, 돌도끼, 돌낫 등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작물을 고랑이 아니라 이랑에 파종하였음을 시사해주는 측면으로서 유의된다.

이랑의 두둑은 고랑의 흙을 퍼 올려서 조성하는 것이다. 두둑에 쌓인 흙은 부드럽게 공그르기가 쉽고, 또한 그로 인하여 수분의 침투도 용이하였다. 한편 그 밑바닥은 본래 생토층이므로 지하로 수분이 스며드는 것을 제한시켜 주기 때문에 그것의 유지에 크게 기여한다. 따라서 이랑에 작물을 파종하면, 씨앗이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아 발아할 수 있는 바, 발아율의 상승이 기대된다. 게다가 고랑의 흙을 퍼 올려 두둑을 조성함으로써 잡초와 병충해 제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농경의 초기 단계에 특별히 건조한 지대가 아닌 경우는 이랑에다 파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음은 위에서 살핀 바 대로이다.

그런데 청동기시대의 밭은 대부분 이랑의 폭이 넓고, 고랑의 폭이 좁은 특징을 지닌다(〈표1〉참조). 이를 통하여 당시에 매년 이랑과 고랑을 교체하여 작물을 파종하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랑과 고랑의 폭이 다르고, 또 석제나 목제농기구로 밭을 갈았던 바, 매년 이랑과 고랑을 교체하여 작물을 파종하는 방식인 대전법(代田法)의 시행은 상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당시 시비기술이 매우 저급하였음이 확실한 바, 매년 동일한 이랑상에 작물을 파종하였다면, 지력의 소모가 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종래에 청동기시대에는 장기간 휴경(休耕)하고 다시 경작하는 관행이 보편적이었다고 추정할 견해가 제기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사정을 염두에 둘 때, 이러한 견해는 매우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초기철기시대에 들어오면서 일부 농기구는 철제로 대체된다. 이러면서 휴경기간의 단축도 예상되지만, 그러나 진주 대평리와 광주 신창동 밭유구를 상호 비교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보고서에서는 광주 신창동 밭고랑의 깊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짐작컨대 그리 깊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고랑의 폭이 이랑에 비하여 매우 좁았던 사정을 고려한다면, 후자 역시 전자와 비슷한 농법 수준 단계의 경작지였다고 보는 편이 무리가 없다. 한전농법에서의 커

다란 진전은 삼국 중·후반기 철제농기구와 우경이 보급된 단계에 가서야 비로소 가능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언급하도록 하겠다.

한편 광주 신창동유적의 보고자는 밭이랑에 작물을 파종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사실 고랑은 통상 배수구로서 기능하였고, 또 그것의 밑바닥은 딱딱한 생토층인 바, 그곳에 작물을 파종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그렇다면 당시 어떠한 방식으로 작물을 파종하였을까가 궁금한데, 이를 유추해볼 수 있는 자료가 최근 진주 대평리 옥방 6지구 밭에서 발견되었다. 옥방 6지구에서 130cm의 간격으로 깊은 고랑을 파고, 그 사이에는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골을 얇게 파 작은 고랑을 만들어서 이랑을 전체적으로 2분할하였던 모습이 확인되었다.

특히, 유의되는 사항은 이랑의 남쪽 지점 두둑마다 발자국 흔적과 같은 타원형의 작은 수혈(竪穴)들이 규칙적으로 나타난 점이다. 아마도 이것은 이랑의 작은 골에 파종하면서 남긴 흔적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하여 청동기시대에 넓은 이랑 위에 작은 골을 내고, 거기에 작물을 조파(條播)하였던 당시의 작묘법을 유추해볼 수 있음은 물론이다. 광주 신창동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작묘법으로 이랑에 작물을 파종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신창동유적에서 벼와 탄화미, 그리고 밀, 호밀, 보리 등의 맥류가 발견되었던 바, 밭에서는 밭벼와 다양한 잡곡류를 재배하였던 것으로 믿어진다.

지금까지 주로 고대 영산강유역 밭농사체계의 일면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곳은 영산강이라는 커다란 하천을 끼고 있었던 바, 하천연변을 중심으로 수전농사가 발달하였을 것으로 믿어진다. 삼국초기 영산강유역 수전경영의 구체적인 실태를 알려주는 자료가 광주 신창동과 무안 양장리 저습지유적이다. 이 유적들은 모두 영산강의 본류가 범람할 때, 하천의 유수작용에 의하여 생긴 배후습지에 조성되었다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 유적의 발굴과정에서 수전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 근처에 수전이 위치하였던 사실은 다음의 몇가지 사항을 통하

여 방증할 수 있다. 먼저 신창동유적에서 상당한 두께의 벼껍질층이 발견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밭에서 재배한 벼도 혼입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대부분은 수전에서 재배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무안 양장리 저습지유적에서는 수전농사에 쓰이던 목제농기구와 더불어 논둑을 보강하거나 보를 만들 때 사용하던 木列構造物이 발견된 바 있었다. 그런데 수전농사는 반드시 물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커다란 규모의 수리관개시설을 만들기 어려웠던 삼국초기나 그 이전 시기에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소택지나 배후습지, 그리고 그 근처에 수전을 조성하기가 수월하였을 것으로 믿어진다. 실제로 이러한 사실은 백제초기에 소택지를 수전으로 개간하였음을 알려주는 다음의 기록을 통하여 방증할 수 있다.

백제본기(百濟本紀) 초기 기록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신빙성이 낮다. 특히, 기년과 관련하여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위의 기사의 紀年도 그대로 믿을 수 없음을 물론이다. 여기서는 위의 기사를 백제초기의 사정을 반영하는 사료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위의 기록에 보이는 '택(澤)'은 자연적으로 물이 고여있는 소택지(沼澤地)나 저습지를 의미한다. 수리관개기술이 저급한 수준이라면, 수전은 물의 공급이 원활한 지역에서 우선 개발되는 것이 상례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곳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소택지나 저습지 그리고 그 근처였다. 이런 측면에서 국인(國人)에게 명하여 남택(南澤)에 도전(稻田)(水田)을 개간하게 한 것은 초기에 백제국가가 소택지나 저습지 또는 그 근처를 수전으로 개간하도록 적극 권장하려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기사를 통하여 백제초기에 소택지나 저습지, 그리고 그 근처를 수전으로 개발하였던 사정을 엿볼 수 있겠는데, 아마도 신창동과 양장리 일대에 위치한 삼국초기 수전도 배후습지에 조성된 수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한편 최근에 여러 곳에서 수전유구가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작은 소하천에다 보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여 관개하던 유형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먼

저 1999년에 울산시 무거동 옥현유적에서 청동기와 삼국시대, 조선시대의 수전유구가 발견되었다. 이곳에 있는 수전은 동서로 길게 연결된 해발 35m 내외의 평탄한 구릉과 구릉 사이의 좁은 곡(谷)에서 흘러내린 소하천에 설치한 보와 같은 시설에서 작은 수로를 통하여 관개하였다. 청동기시대부터 삼국초기까지 사용된 수로는谷의 경계부, 즉 수전의 복단에 설치된 것으로서 길이 45m, 최대폭 2.6m, 깊이 85cm 전후이다. 이 수로는 수전을 개설한 청동기시대에 만들어졌고, 이후 일시적으로 방기되기도 하였으나 여러 차례 개수되어 삼국시대 일정한 시기까지 계속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현재 발견된 조선과 삼국시대의 수전은 이 수로가 폐기된 이후에 새로운 수로를 통하여 관개하였는데, 삼국시대의 수로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조선과 삼국시대의 수전은 서북에서 동남방향으로 낮아지는 곡내의 미지형경사를 따라 계단상으로 배치되었다. 삼국시대의 것은 조선시대 수전에 비하여 논둑의 폭이 매우 조밀하며, 단위면적은 32~44평 정도의 규모이다. 반면에 청동기시대의 수전은 지형의 경사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곡의 중심부쪽에 조성되었고, 그 모양은 방형, 장방형, 부정형 등 다양하며, 논둑에 의하여 구획되어진 수전의 단위면적은 1평 미만 3평 전후 정도였다. 삼국시대의 수전은 지형의 경사를 활용하여 수전을 계단상으로 구획하였던 바, 비교적 배수가 용이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나, 청동기시대의 경우는 배후습지환경과 비교적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였던 바,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발굴과정에서 이곳이 매우 배수가 불량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발굴보고자는 수전 아래층에서의 산화철, 망간 분리집적, 환원층까지의 깊이 등을 고려하여 반건·반습, 습답으로 추정한 바 있다.

1999년에 또 다른 수전유구를 논산 마전리유적에서 발견하였는데, 이것은 이 마을의 노루목 근처 저지대 평탄면에 위치하였다. 수전은 구릉의 곡부(谷部)에서 자연적으로 흘러내리는 물을 막아서 관개하였는데, 발굴 과정에서 막아두었던 웅덩이에서

다시 인공적으로 수로를 파서 논에 물을 대었던 시설이 조사되었고, 또 저지대 평탄면에서는 독으로 구획된 수전과 그 사이를 흐르던 소형의 수로들이 확인되었다. 지형이 경사진 곳에서는 수전을 계단식으로 조성하였고, 경사가 급하지 않은 곳에서는 수전 사이에 작은 구(溝)를 경계로 독을 설치하여 구획하였다. 수전은 자연적인 지형을 그대로 활용한 관계로 3m 내외의 방형이나 장방형 모습을 띠고 있고, 경사가 있는 곳의 경우에는 계단식 논의 전형적인 모습인 나팔모양으로 벌어지는 형상을 이루고 있다. 발굴보고자는 이 수전유구를 청동기시대의 것으로 보고하였다.

삼국초기에 소택지나 저습지 그리고 그 근처를 수전으로 개간한 사실과 아울러 소하천에다 보와 같은 간단한 관개시설을 설치하여 물을 공급할 수 있었던 곳에다 수전을 조성한 사실을 위에서 살펴 보았는데, 영산강유역의 경우도 역시 두 유형의 수전을 모두 개발하였을 것으로 믿어진다. 이 가운데 당시에 어느 유형이 보편적이었는지 판단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이는 앞으로 보다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바라고 하겠다. 다만 문헌기록에서 백제초기에 소택지를 도전(稻田)으로 개간한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이 전하는 바, 당시에 이와 같은 유형의 수전이 적지 않아 개간되었던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두고자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최근에 발견된 수전의 모습이 모두 소구획이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울산 무거동 옥현유적의 청동기시대 수전은 그 규모가 1~3평 남짓이며, 논산 마전리의 경우도 3m 내외의 장방형이나 방형 모습을 하고 있다. 물론 무거동 옥현유적에서 발견된 삼국시대의 수전은 이들 수전보다 규모가 컸지만, 그러나 조선 시대에 비하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수전을 소구획으로 만든 이유는 일차적으로 수심을 고르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후대까지 특별히 경사진 곳에 위치한 수전의 경우는 반드시 소구획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철제농기구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 단계인 삼국초

기까지 석제와 목제농구기로 기경하고, 수전면을 고르게 정지하였던 바, 경사진 곳에 위치하지 않은 수전이라도 소구획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여겨진다. 삼국초기 영산강유역에 위치한 수전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지금까지 광주 신창동과 무안 양장리 저습지유적을 중심으로 삼국초기 영산강유역 수전경영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삼국초기에 수전에서의 생산성은 그리 높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소택지나 저습지 근처에 조성된 수전은 지하수위가 높고, 배수가 불량한 담수전(湛水田)이다. 그런데 담수전에서는 미생물의 활동이 왕성하지 못하여 벼의 생육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없는 결과, 다수확에 지장을 받았다. 또한 담수상태가 오래되면 H_2S 가 발생하여 근부현상(根腐現象)이 나타난다. 이 현상이 나타나면 뿌리가 물이나 영양소의 흡수에 장애를 입어 마침내는 잎의 밑부분부터 윗부분까지 마르게 되는 호마엽고병(胡麻葉枯病)이 생기고 결국 가을에 썩정이 벼가 많이 나와서 종실(種實)이 부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수확이 줄어들었다. 여름철에는 잎과 줄기가 무성하다가 가을에 종실이 부실하다고 하여 이를 秋落現象이라고도 부른다. 신창동 저습지 유적에서 발견된 두꺼운 벼껍질층에 종실을 이루지 못한 썩정이가 다량 포함되었는데, 이것은 신창동유적이 조성될 당시에 거기에 위치한 수전이 주로 저습답이고, 거기에서 흔히 발생하는 근부현상의 결과로 결실이 부실하였던 사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소하천의 물을 보와 같은 시설물로 막아서 관개하던 수전의 경우 관개와 배수가 비교적 원활하여 저습지의 경우보다 생산성이 약간 높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보와 같은 간단한 시설물로 물을 막아서 수위를 높이 상승시키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하여 관개할 수 있는 지역은 하천 연변의 좁은 범위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자연제방이나 또는 그것과 저습지 사이의 중간지대까지 관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단계 더 진전된 관개기

술의 개발을 기다려야만 하였다. 또한 토사의 유입이나 홍수, 하천의 유로 변경 등에 의하여 수리시설이 매몰되거나 파괴되기 쉬웠다. 여기다가 가뭄이 들어서 소하천이 말라버리면 수전농사를 짓지 못하던 경우도 자주 발생하였으리라고 짐작된다. 이런 의미에서 보와 같은 간단한 수리시설로 관개하던 수전의 생산성도 그리 높았다고 말할 수 없다.

4. 영산강유역 고대문화의 특징

영산강유역에서 나타나는 고대문화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청동기시대의 수많은 고인돌(支石墓)이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남지방에는 2,200여 개군 19,000여기 이상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다(이영문·조근우 1996). 이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도 가장 밀집된 곳이다. 고인돌의 형식은 크게 지상형(탁자식)과 지하형(바둑판식, 개석식)으로 분류되는데 전남지역의 고인돌은 대부분 묘실을 지하에 둔 지하식이다. 출토유물에는 토기류, 석기류, 청동기류, 장신구류 등이 있는데, 특히 보성강유역과 전남 동부해안지역에서는 요령식동검, 동모, 구슬 등 많은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고인돌은 청동기시대의 무덤이 분명하지만 그 중 일부는 세형동검이 사용되었던 청동기시대 후기에도 존재하였으나 철기문화의 등장과 함께 점차 소멸되었을 것이다. 고인돌의 연대와 성격문제에 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나 전남지역, 특히 영산강유역의 청동기문화를 대표하는 무덤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둘째, 독특한 옹관고분이 존재하는 점이다. 철기시대에는 토광묘와 옹관묘가 주로 사용되다가 3세기 후반 내지는 4세기 전반에는 지역에 따라 중심 무덤이 달라진다. 즉, 한강유역의 백제지역에서는 적석총이, 경주 주변의 신라지역에서는 적석목곽분이, 가야지역에서는 수혈식 석곽분이, 그리고 영산강유역에서는 옹관고분이 등장하였다. 옹관고분은 분구묘(墳丘墓)이면서 다장(多葬)이 특징인데 여러

기의 옹관과 토광묘(목관 혹은 목곽)를 안치해야한다. 영산강유역에서 옹관고분이 유행한 기원후 3세기말에서 6세기초까지는 옹관고분 이외에 다른 형태의 무덤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즉, 가야지역 뿐만 아니라 전북지역에도 많이 나타나는 수혈식 석곽묘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원인은 옹관고분이 영산강유역에서 유난히 발달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전기의 석실분이 백제의 석실분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5세기말에서 6세기 전반까지 축조된 전기 석실분은 옹관고분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무덤의 주체부를 옹관에서 석실로 변화시키고 있다. 즉, 분구의 규모가 백제 석실분 보다 크고, 석실분이 지상식이며, 석실의 구조도 전형적인 백제 석실분과 다른 점이 있다. 또한 전기 석실분 단계에서는 횡혈식 석실분 이외에도 수혈식과 횡구식 석실분이 나타나고 있고, 외형에서도 원형 이외에 방형이나 전방후원형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방후원형 고분은 내부적인 구조나 출토유물에서 日本九州지역과 유사성 때문에 일본학자들의 주목을 받아왔고, 일본과의 관련성이 끝임 없이 제기되어 왔다(岡内三眞編 1996, 東潮 1996, 田中俊明 1996, 吉井秀夫 1996, 小田富士雄 1997). 이 고분의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는 문제는 전남지역 고고학의 최대 과제이다.

끝으로 이 지역의 고대사회가 급격한 변화되었다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변화·발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남지역 철기문화의 특징은 청동기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철기와 철제기술이 전달되면서 철기문화가 서서히 발전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낙동강유역과 비교하면 잘 알 수 있다. 즉, 토광묘가 기원후 2세기 후반경에 목관(木棺)에서 목곽(木槨)으로 변화되는 현상을 이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철기에서는 무기류가 적고, 토기에서는 회백색연질토기(소위 瓦質土器)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대신 주구토광묘가 유행하면서 그 주변에 옹관이 매장되다가 대형옹관묘(옹관고분)로 발전되었다.

5. 맺음말

이상과 같이 영산강유역 고대사회의 형성배경을 살펴보았다. 영산강유역은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유적들이 밀집하여 있는 곳이다. 이 지역의 고대사회는 문헌기록에 잘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남긴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짐작할 수밖에 없다.

영산강유역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가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많은 연구성과를 얻고 있다. 특히, 전방후원형 고분과 원통형토기의 존재는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는 결정적인 자료이다. 이들 자료에 대한 해석은 앞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대사회의 형성배경으로서 중요한 문제는 철기문화의 등장과 발전, 외부와의 교류 그리고 옹관고분의 등장과정 등이 있다.

앞으로 영산강유역 고대문화의 주인공이 과연 누구이며, 그들의 사회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는 연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고고학자, 문헌사학자 등 고대사에 관심이 있는 모든 연구자가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최성락, “영산강유역 고대사회의 형성배경”
김영심, “榮山江流域 古代社會와 百濟”

전덕재, “三國時期 榮山江流域의 農耕과 社會變動”